

조각상 '걸어가는 사람' 본질적인 고통을 만나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4월 15일까지 자코메티전



자코메티의 유작 '로타르상'

인간존재 탐구한 스위스 출신 작가

작품 '걸어가는...' 아시아 최초 공개

1200억 경매 최고가 조각 작품 등 120여점 전시



'걸어가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작정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금방이라도 부러져버릴 것 같은 한 남자를 만나고 나오는 길. 전시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접하는 그의 육성은 의미심장하다. 높이 188cm에 달하는 자코메티의 '걸어가는 사람'(Walking man) 조각상을 마주한 이들은 그 공간에 한참을 머물며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떠올린다.

지난달 말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만난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1966)의 작품들에는 세상과 인간의 본질적인 고통을 응시했던 작가의 철학과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작가는 생명의 핵심을 인간의 '시선'이라 생각했고 그 시선과 눈빛을 통해 조각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국내 최초 자코메티 재단 한국특별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조각, 회화, 판화, 사진, 유품 등 120여점에 달하는 다양한 전시물을 통해 예술가 자코메티, 인간 자코메티를 만날 수 있다. 전시 작품 평가액은 2조 100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열렸던 마크 로스코(2조 5000억원)전에 이어 두번째로 큰 금액이다.

기존에 열렸던 여느 블록버스터전과 달리 자코메티 전 현장은 인간 존재에 대한 끝없는 탐구에 몰두했던 그의 작품과 글, 영상들의 영향인지 차분하고 사색적인 분위기였다.

전시장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건 지난 2010년 경매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역대 최고가였던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을 누르고 '걸

어가는 사람'이 1200억원에 낙찰되며 세계 경매 신 기록을 기록하는 순간이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자코메티는 화가였던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빚기 시작했고 파리에서 전성기를 맞았다. 그는 부와 명예를 안은 성공한 예술가였지만 평생 7평짜리 작업실을 떠나지 않은 채 마지막 순간까지 작업에 열중했다.

전시는 가족들의 모습을 그린 회화를 만날 수 있는 스위스 시절부터 그의 일생을 천천히 따라가며 작품과 자료 등을 보여준다.

자코메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작품의 모델이 되어 준 이들도이다. 한 평론가가 '사형수와 사형 집행인 간의 전쟁'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자코메티와 모델간의 긴장감은 강렬하다.

인생의 동반자이자 그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동생 디아고, 아내이자 뮤즈였던 아네트, 철학적 동지였던 일본 학자 야나이하라, 그리고 술집 여자주말년의 그에게 예술혼을 불태우게 했던 37살 연하의 애인 캐롤린을 모델로 한 작품들은 각 인물의 특징을 고스란히 잡아내며 깊은 인상을 남긴다. 특히 그가 마지막 회화 작품 '자크 뒤방'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생생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점은 흥미롭다.

피카소와의 일화도 눈길을 끈다. 부와 명성을 모두 거머쥔 피카소는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인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스무살 연하인 자코메티에게만은 예외여서 대화와 교류를 청하고는 했지만 그의 인간됨에 실망한 자코메티는 결국 피카소와 교류를 끊는다. 또 실존 철학의

대가 사르트르와의 만남, 사무엘 베케트의 제안으로 제작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무대 사진 등도 흥미롭다.

전시장에 재현된 작가의 작업실은 고작 7평이다. 수많은 작품을 쏟아낸 공간으로는 너무 작은 규모의 작업실은 물질에 초연했던 자코메티의 삶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해 경이감이 느껴진다.

'앉아있는 남자의 흉상'(로타르상)은 작가의 마지막 작품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석고 원본, 청동 작품 2개가 동시에 전시돼 있다. 관람객들은 오래도록 작품 앞에 머문다. 모델 로타르는 인생에 실패를 맞은 남자로 그의 얼굴에는 온갖 회한이 담겨 있고 그 모습은 작품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로타르'를 제작하는 자코메티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 있다. '인생의 마지막'을 예감한 그가 '로타르상'을 남겨두고 남은 작업실을 떠나는 장면에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보인다.

역시 압권은 '걸어가는 사람'이다. 주최측은 '침묵과 목상의 방'이라는 독립된 공간에 이 작품을 배치했다. '걸어가는 사람'은 전 세계에 6개가 있으며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은 자코메티의 손길이 그대로 묻어 있는 석고 원본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개중이다. 관람객들은 암흑 속 중앙의 좌대 놓인 '걸어가는 사람' 주위를 천천히 돌며 작품을 감상한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그 남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관객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건넨다. 티켓 가격 성인 1만6000원, 청소년 1만원 등. 문의 02-532-4407. /서울=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런치 토크' 시작합니다

11월까지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28일 한희원 작가 강사 참여

을 들어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를 진행중인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이 '런치 토크'를 새롭게 시작한다.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마지막주 수요일(낮 12시) '문화가 있는 날'에 열리는 '광주시립미술관 런치 토크'는 예술가, 문화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 미술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이름처럼 점심을 먹으며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무료로 운영된다.

오는 28일 열리는 런치 토크 강사는 한희원 작가이며 4월에는 이돈홍 작가, 10월에는 이이남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그밖에 장민한 조선대 교수의 '미술관·갤러리 전시 이야기',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의 '2018년 광주비엔

날레 '상상된 경계들' 강좌가 이어진다. 또 이무용 전남대 교수의 '광주를 문화도시 공간으로 만들기', 황봉년 전라도닷컴 편집장의 '전라도 1000년 이야기',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의 '전라도 여행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미술관은 올해 신규 프로그램으로 미술이론 전문 강좌 '미술관 아카데미'를 시작한다. 오는 20일(오후 3시~5시)부터 12월까지 매달 1회씩 진행하며 올해 주제는 '서양근현대미술'이다. 인상주의, 야수파, 추상미술, 개념미술, 팝아트, 미디어아트까지 서양근현대미술사를 통시적으로 살펴 볼 수 있으며 10월에는 부산비엔날레, 부산시립미술관도 답사한다. 역시 무료로 운영한다. 문의 062-613-71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선묵연회 회원전

9~15일 금호아트홀

지선묵연회(지선묵緣會·회장 양희영) 제17회 회원전이 9일부터 15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학정 이돈홍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여성 제자들의 모임인 지선묵연회는 지난 1984년 결성 후 첫 전시회를 가졌으며 2년에 한번씩 회원 작품전을 열고 있다.

고문을 맡고 있는 김연영, 황정숙씨를 비롯해 강영화·김다순·서정숙·문광희·박숙자·윤정래·장주현·전현숙씨 등 30여명의 회원들이 다채로운 서체의 작품을 출품했다. 회원들은 두보의 시 '추홍(秋興·가을의 정취)'을 비롯해 '채근담', '주역', '중용' 등 고서의 글귀, '안민가'와 '태평가' 등 다양한 내용을 글씨로 표현했다.

이번 전시에는 이돈홍 선생도 친조 출품했다. 초대 시간은 9일 오후 5시다. 문의 062-360-84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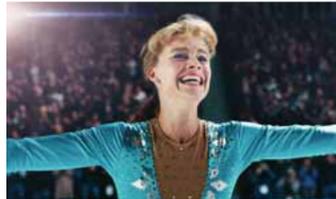
양희영 작 '景慕宮下賜詩' 부분

광주극장 '아이, 토냐' 등 영화 3편 잇단 개봉

광주극장이 봄을 맞아 세 가지 드라마 영화를 준비했다.

오는 8일 개봉하는 '아이, 토냐'는 미국 최초로 트리플 악셀에 성공하며 언론과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피겨 스케이팅 선수 토냐 하딩이 언론에 의해 희대의 악녀가 되어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블랙코미디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10일 만나볼 수 있다. 플로리다의 디즈니월드 건너편 '매직 캐슬'에 사는 6살 꼬마 '무니'와 친구들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 미국의 젊은 천재감독으로 주목받고 있는 있는 선 베이커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과 무지개를 연상시키는 컬러풀한 영상미에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까지 더해져 '뉴욕 타임즈 선정 올해의 영화 No. 1'으로 꼽힌 영화다.



'아이, 토냐'

제 70회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국제비평가 협회상, 쿼어 종려상을 수상하며 3관왕을 차지한 영화 '120BPM'은 15일 개봉한다. 1989년 파리, 가슴 터질듯이 사랑하고 투쟁했던 이들을 위한 찬가를 담고 있는 영화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내 집같은 편안함! 고가의 여행대 휴식을 한 차분 높은 수문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당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 정식

알찬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마니를 위한 명상 사당이 갖춰진 등·수목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광주맛집 since 1981 37년 고과와 함께 지켜온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IANG HOTEL